

성경 예언 해설집 <20회>

다니엘

(지나호에 이어서)

지붕에 있는 자나 밭에 있는 자나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가려고 지체하지 말고 빈몸으로 성을 떠나 산으로 도망가 라고 하였다. 그날은 성안에 있는 자는 학살당하는 재앙의 날이니 전후후무한 환란 이라고 강조하였다. 급하게 도망가기 힘든 자는 아이 벤 여인과 젓먹이는 아이가 있는 자이니 뒤에 처져 있다가 살해당하는 관례로 화가 있다고 하였다.(눅 21장)

예수 당시 유대인은 로마 제국에 지배를 받고 있으나 로마의 지배를 배격하고 독립 운동을 하고 있었으니 예수는 다니엘이 말한 넷째 짐승 미운 물건을 로마 황제로 생각하여 잔인한 로마 제국은 복종하지 않는 유대인을 보복하는 학살극을 벌일 것이 미리 피부로 느껴지는고로 그렇게 말하였다.

그리스도로 온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죄의 대가로 저주가 임하는 것으로 강대국 로마의 손에 불이나 성소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시키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 대신 미운 물건을 세운다고 하였으니 성전에서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자가 서는 것을 가리킨 것이라고 예수는 묵시적으로 말하였다.

예수가 말한 환란은 무자비한 로마의 학살을 말하였으니 유대인의 환란이오 지구 전체를 말한 것은 아니다. 바울도 로마 제국을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하였다.(살후 2장)

다니엘이 본 넷째 짐승은 잔인하여 먹고 부셔뜨리고 발로 밟고 그 앞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다. 다니엘서에 기록한 7일, 즉 7년은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최후 결전이나 전 3년 반은 하나님이 활동하는 기간이니 거룩한 곳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증거하는 기간이다. 다니엘서를 계시록 11장과 짝을 맞

추면 한 점도 틀림없이 맞는 것이다.

계시록 11장에서 감람나무 선지자가 3년 반 증거를 마칠 때 짐승이 기름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를 죽이고 거룩한 성소를 폐하고 제사를 금한다고 하였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의 기록이 거듭되었으니 예수교에서 예수 제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7년 대환란이 온다고 근 2천년을 두고 강조하나 그들이 무지하여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빛이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이다.

다니엘서에서 말한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고 암흑 기간을 3년 반이라고 하였는데 감람나무 선지자가 죽어 3일 반 동안 시체를 성안의 거리에 두고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구경한다고 하였는데 죽임을 당하였다고 한 것은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고 마귀가 선지자를 세상 사람에게 미운 물건으로 만들어 인권을 빼앗고 육기를 치르게 하니 죽은 자와 같은 것이다.

3일 반 동안 시체가 성 거리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 승천한다고 하였는데 3일 반 죽은 기간은 감람나무의 3년 반 고난 기간이니 동방 의인 감람나무를 증거한 박태선 장로가 1955년부터 1958년까지 증거하고 58년 12월부터 61년 군사 혁명 이후 출옥 때까지 3년 이상 자유없는 생활을 하다가 인권을 회복하였으니 성경은 그것을 부활 승천으로 승화시켰다. 계시록 11장에서 감람나무 선지자 두 사람이 동시에 활동하는 것으로 기록하였으나 계시록 12장에서 두 사람에게 관하여 언급하였다.

해와 달과 별을 밟고 지니고 있는 여인은 먼저 나온 자요 여인이 낳은 아들은 후에 나온 자이다. 먼저 나온 여인은 이긴 자를 생산한 어머니 격이요 길 예비자이고 그가 낳은 아들은 마귀를 죽이는 이긴 자이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찰장으로 민족을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 보좌

에 오른 자라고 기록한 것은 그가 완성자 하나님 되심을 말한 것이다.

비록 마귀를 이기고 나타나 3년 반의 세 배인 12년을 증거하고 먼저 증거한 감람나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있으나 성경에 명시된 그대로 부활 승천할 것이다.

감람나무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참그리스도요 감람나무를 대항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이니 미운 물건이다. 성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에서 금 같은 기름을 흘려내는 자는 온 세상에서 주 하나님을 모시고 서있는 자녀라 (사기라 4:11-14)_그림 출처: https://youtu.be/Q1Yc_kk7aD8?t=83

경이 말하는 미운 물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요 반대로 세상에서 미움받고 고통당하는 의인은 거룩한 자이니 기름부음을 받은 자. 이슬 성신이 그 몸에서 강같이 흘러나오는 사람이다.

스카라 선지자도 계시를 볼 때에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에서 금 같은 기름을 흘려내는 자는 온 세상에서 주 하나님을 모시고 서있는 자라는 말씀을 천사에게서 들었다.(숙 4:11-14) 그런즉 다니엘서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감람나무요 예수 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으니 주인공이 오기 전에 거짓 목자가 참 목자로 행세하였고 비진리가 진리 행세를 하였다.

성경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시조 아브라함이 제사울린 모리아 산시 온 산이 성산이요 시온 산에 솔로몬이 성

전을 세운 이후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인정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였는데 마지막 때 구원을 베푸는 거룩한 곳은 한반도 소사 땅이니 이곳을 한국의 선지자들은白石(백석)으로, 素砂(소사)로, 白砂(백사)라고 기록하였고 이사야는 광야로, 사막으로 표시하였다.

요한계시록은 한반도에서 응하는 말씀이니 계시록 해석 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사야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주의 길이 예비되고 그곳을 거룩한 길이라고 하였다. 광야가 곧 사막이요 사막이 광야이니

사막은 白砂(백사)요 白砂(백사)는 흰 돌이요 흰 돌이 素砂(소사)다.

미가엘은 구세주

본 문(단 12:1-13)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치욕을 받아서 무궁하게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있는 자는 궁창(穹蒼)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영토록 비취리라. 다니엘마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불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

하며 지식이 더하리라.(중략)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천2백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천3백3십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이니라.

해설

성경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등장하는데 미가엘은 무관장 천군(天軍)으로, 가브리엘은 문관장 천사(天使)로, 평화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인간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미가엘은 악마와 싸우는 천군의 장으로 붉은 용 마귀를 멸하는 대역사를 이룩하는 존재로 계시록 12장에 기록하였다. 다니엘 12장과 계시록 12장은 같은 맥락이니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때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민족을 호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미가엘이라는 것을 가리킨 것이니 천사의 실체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물이 아니고 마귀와 싸워서 이긴 의인을 가리킨 것이다. 그때에 전후후무한 환란이었다고 한 것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마귀와 싸우던 거룩한 자가 꺾이고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서고 제사를 폐하는 극한 상황을 의미한다. 환란 기간에 연단을 받아 이긴자가 구원을 얻으니 티끌 가운데서 자던 자가 깨어 영생도 얻고 치욕을 당한다 함은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하니 상벌 받는 것이 아니고 의인 미가엘의 증거를 믿고 지키는 자는 영생의 상을 얻고 고통을 당하는 자는 악한 자이니 무궁토록 모욕을 당하는 것이다.

본문 말씀 중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지혜있는 자는 별같이 빛나고 지혜가 없는 자는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 하였으니 본문에서 말하는 악한 자는 세상의 악

이 아니요 빛으로 오신 의인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말하였다.

구약 성경 기록에서 영생하는 자의 영광과 영벌 받는 자의 고통을 명시한 기록은 미가엘 시대에 응하는 것으로 다니엘은 기록하였다. 다니엘서의 특징은 마지막 때를 수차 강조하였으니 하늘의 비밀을 알리고 하지 말고 이 말과 글을 봉함(封緘)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내용은 기록한 사람도 알 수 없고 주인 공 미가엘이 오기 전에 이 기사를 역지로 풀어 말한 자는 거짓이요 정죄될 것이니 봉함한 타인의 편지를 뜯어보는 불법과 같은 것이다.

5절 이하에, 강 좌우에 두 사람과 강물 위에 있는 자까지 세 사람이 있으니 세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미가엘은 악마와 싸우는 천군의 장으로 붉은 용 마귀를 멸하는 대역사를 이룩하는 존재로 계시록 12장에 기록하였다. 다니엘 12장과 계시록 12장은 같은 맥락이니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때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민족을 호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미가엘이라는 것을 가리킨 것이니 천사의 실체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물이 아니고 마귀와 싸워서 이긴 의인을 가리킨 것이다. 그때에 전후후무한 환란이었다고 한 것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마귀와 싸우던 거룩한 자가 꺾이고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서고 제사를 폐하는 극한 상황을 의미한다. 환란 기간에 연단을 받아 이긴자가 구원을 얻으니 티끌 가운데서 자던 자가 깨어 영생도 얻고 치욕을 당한다 함은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하니 상벌 받는 것이 아니고 의인 미가엘의 증거를 믿고 지키는 자는 영생의 상을 얻고 고통을 당하는 자는 악한 자이니 무궁토록 모욕을 당하는 것이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승리자 미가엘의 영생의 말씀을 믿고 자기 죄와 싸워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는 자는 지혜있는 자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라고 재삼 강조하였다. 승리자의 고난 기간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기간이니 이때를 가리켜 연단 기간이라 한 것이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최악의 시기로 순교의 정신이 있는 자는 구원이요 미련한 자, 두려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다.

다니엘서에서 말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로 수차 기록하고 끝절에서 1천2백90일 또는 1천3백3십5일 등은 모두 3년 반을 가리킴이니 1994년은 거룩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압축 시대로 성도들은 악의 세력과 싸우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이다.*

차승도

하나님과 마귀 그리고 사람

1면에 이어서

(사편82:6)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 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방금 인용된 성경에는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명시되어 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는 "야훼" 즉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며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영생의 존재로 알려져 있다. 하나님이 영생의 존재라면 그 아들들 즉 사람도 마찬가지로 영생의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손색이 없을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사람은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갔다. '죽음이라는 병의 원인인 죄(罪)'라고 성

경에는 규정되어 있다.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그 장소를 변형되지 않게 잘 보존하고 그곳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사건을 해결하게 된다. 죽음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는 바로 생명이 존재하는 그곳이다. 야고보서(1:15)의 내용 검토를 통해 죽음에 작용되는 사건의 범인을 확정할 수 있다. 바로 (육신)=(죄)=(사방)이라는 등식이 그것이다.

인류역사 최초의 영적 순교자요 최초의 영적 부활자이신 동방의인께서 야고보서(1:15)의 기록 내용을 통해 선악과가 사람의 어디에 파리를 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질문하셨다. "육심은

누가 부림니까?"라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었다. 동방의인께서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입니다. 육신이 죄(罪)라면 주체의식은 그 육신의 뿌리가 되니 '죄의 뿌리요' 죄의 뿌리가 되니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체의식이 바로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죽게한 선악과 그 자체인 것이며 선악과는 또한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창세 이후 아무도 몰랐던 그 죽음의 원인의 정체와 존재 위치를 정확히 밝히셨던 것이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걸려 있는 병이다. 이제 천하의

대명(大名醫) 되시는 동방의인께서 출현하시어 치료약인 구세주의 증표라고 적시던 "빛난 이슬"을 죽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먹게 해 주시어 그 병을 치료하고 계시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병이 치료되면 어떤 신분의 존재가 되는가?

죽음이라는 병이 치료되면 어떤 신분의 존재가 되는가? 아래에 인용되는 성경이 그 해답을 알려 주고 있다. (요한복음 3:5)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죽음이 없어지면 죽을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으로 거듭났다가 되는 것이다. 또 어떤 성경에는 죽음이 없어진 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뉘어 표현되어 있다. (계 9:6)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여도 언지를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사 말이 없어지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성경으로서 고린도전서(15:26), 이사야서(26:19) 등이 있고, 또한 사편(82:6), 고린도전서(3:16), 신명기(14:1), 요한일서(3:2) 등에서는 사람

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까지 증거하고 있다.

생명이 하나님이기엔 죽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는 생명이 끊어져 죽는다는 이치를 알아보았다. 그럼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생명의신 하나님을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분야야말로 인류에게 영생을 주는 참 구세주에 분명하다.

구세주께서 죽는 사람과 다른 점은, 구세주의 몸에서 영생의 물질이 되는 감로 이슬이 쏟아져 나온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틀림없는 제2차 전 상의 주인공이다. 출처: https://youtu.be/LohoMnb401M



석가모니는 쫓겨나 미륵을 기다렸다 <41>

한국은 극락국(極樂國)의 표준이 될 것이다

오늘은 극락(極樂)을 찾아서 경전의 바다로 탐험해 볼까요? 우선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어디에 있을까? 한국에 사는 외국인만 236만 명이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전체 한국인 인구의 49% 거의 5퍼센트나 해당된다고 한다. 이것은 작년의 수치이고 재작년보다 86퍼센트나 오른 수치라고 한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방송에서 외국인들이 한국말 하는 걸 넘어서 노래까지

유창한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그만큼 한국의 위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대부분 우리가 잠시 잊고 사는 것들이다.

1. 한국의 대중문화를 좋아한다.
2. 한국어가 좋아서 한국어를 배운다.
3.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저렴하다.
4.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길어 60대가 자기들 나라의 50대 초반, 50대는 40대 초반, 40대는 20대 후반으로 보인다.
5. 한국의 치안이 좋아 안전감을 느낀다.
6. 노인과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있어 보여 좋다.
7. 한국에서 의료비는 저렴하다.

8. 국민을 위한 국가의 배려가 인상 깊다.
9. 한국의 식당은 서비스가 좋다.
10. 음식이 다양하고 맛있다.
11. 24시간 음식을 주문 배달받을 수 있다.

[예]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爾時佛告長老舍利弗 從是西方 過十萬億佛土 有世界名曰極樂 其土有佛號阿彌陀 今現在說法 舍利弗 彼土何故名爲極樂 其國衆生無有衆苦 但受諸樂故名爲極樂 其土有佛號阿彌陀 今現在說法 舍利弗 彼土何故名爲極樂 其國衆生無有衆苦 但受諸樂故名爲極樂 其土有佛號阿彌陀 今現在說法 舍利弗 彼土何故名爲極樂 其國衆生無有衆苦 但受諸樂故名爲極樂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이르시기를, 이 서쪽을 따라 십만 억의 부처님 땅을 지나면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데, 이 땅에 아미타라고 부르는 부처님이 계시서 지금 현재에도 법을 연설하고 있느니, 사리불아 저 땅을 어찌하여 극락이라고 부르는지 아니냐? 그 나라의 중생들은 고통이 없으며 오로지 모든 즐거움만이 있으므로 극락이라고 부르느니라.

또 아미타부처님의 별칭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舍利弗 於汝意云何 彼佛何故號阿彌陀 舍利弗 彼佛光明無量 照十方國無所障蔽 是故號爲阿彌陀 又舍利弗 彼佛壽命及其人民無量無邊阿僧祇劫 故號爲阿彌陀 又舍利弗 彼佛壽量及其人民無量無邊阿僧祇劫 故號爲阿彌陀

사리불아, 너는 어찌하여 저 부처님을 '아미타'라고 생각하느냐? 사리불아, 저 부처님은 빛의 밝음이 한량이 없고 시방(우주의 나라들)을 비춤에 있어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없으므로 '아미타'라고 부르느니라. 또 사리불아, 저 부처님과 그(나라의) 사람들은 한량없고 가히 끝없을 정도의 아승지급의 수명을 가지므로 '아미타'라고 이르느니라.

해설 : 위와 같이 극락에 대해 석존은 말씀하고 있다.* 명鍾